

4·9 총선 광주·전남 누가 뛰나

전남 동부권

여수 갑

여수는 인구하한선이 무너지면서 갑과 을, 2개의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현역인 김성곤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맞대결에 나서고, 또 다른 후보자들도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절박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김성곤(신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15대 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현재 17대 의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신당에서는 김강식 남해안발전연구소장이

선거구 통합 가능성...김성곤 선택 관심

김종철·김종석씨, 민주당 공천 경쟁 치열

김종철 전 의원과 김종석 전 여수시장이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차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김소장은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이광수 전 정동영 후보 수행실장도 순천과 여수 갑 중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 관심거리다. 민주당에서는

있으며, 시장 재직시 다져놓은 인맥을 토대로 공천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용우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고려중이며, 민노당에서는 정경희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장세석 뉴라이트전국연합 여수상임대표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여수 을

주승용(신당)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여수시장 출신인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의 브레인으로 활동했으며, 당내 경선 때는 전남도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승리를 이끌었다. 신당에서는 김종철 전남도지사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5선을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지지기반이 강점이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총

주승용 재선거도에 김종빈 행보 주목

김종철·박병열씨도 탄탄한 지지기반 강점

선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총장은 현재로선 당적이 없지만 주변에서 신당입장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3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인수 3려통합공동대표

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심을 다지고 있다. 또 박병열 전 도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심정우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양·구례

2월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에서 구례가 인근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로 떨어져 나가고, 광양이 단독 선거구로 변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특히 8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가 5명에 이르고 있어,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고된 상태다. 현역인 우윤근(신당)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정동영 후보의 전남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대선 때는 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우윤근 수성이나, 정철기 탈환이나

단독 선거구 가능성...예비후보 등록자만 5명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에 맞서 신당에서는 신홍섭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에선 정철기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광양만권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금배지 탈환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정병훈 거광중·고등학교 이사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발을 누비고 있다. 김광영 전 광주대학교수는 무소속으로 출마의사를 공식 표명했으며, 박필순 전 도의원도 무소속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순천

전남지역 선거구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 가운데 하나로, 서갑원(신당) 의원이 재선의지를 밝히며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서 의원에 맞서 신당에서는 비례대표인 장복심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여성과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변해왔다. 허정인 전 전남도 의원도 신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경재 전 의원이 권토

서갑원 재선에 장복심·김경재 도전장

허정인·이수근·구희승씨도 바닥 민심 다져

종래를 노리고 있다. 2004년 탄핵역풍에 휘말려 서 의원에게 패했던 김 전 의원은 4년간 와신상담하며 칼날을 갈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선 황선호 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이수근 전남도당 위원장이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전남공동위원장이었다. 현재는 당적이 없는 구희승 변호사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완근 전 전국기초의원무소속연대공동대표도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임내현 前 광주고점장 출판 기념회

이용섭 전교·김동신 前장관도 출사표

정가풍향계

1천5백명 참석 성황

○임내현 전 광주고점장이 8일 오후 광주시 운암동 그랑시아 웨딩타워에서 개최한 '섬기는 일꾼 임내현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출판기념회'는 1천5백여명이 참석한 등 성황리에 개최. (사진 위) 지난 3일 4·9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임 전 광주고점장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얼굴을 알리고 정치적 입지를 부각시키는 등 광주 북을지역 공약을 본격화.



대선 출정식 방불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1천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출마를 앞두고 세(勢)를 과시. (사진 가운데) 이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 등 정부 각료들과 이용희 국회부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 김완기·정찬용·김병준 전 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방단체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대한민국 희망보고서-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마치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후문.



의 총선 승리를 기원.

는 책을 소개. 민 전 비서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광산구가 2개 선거구로 분할될 경우, 첨단 지역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

민주 지도부 대거 참석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이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자신의 40년 군 생활을 되돌아 본 '군인의 길을 걷다'라는 책을 발표. (사진 아래) 육군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 전 장관은 이 책을 통해 녹색 군복을 입고 바라본 현대사의 굴곡과 자신의 인생관을 담담한 필체로 소개.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최인기 원내대표, 박주선 전 의원 등 2천여 명의 지인이 참석, 올 4월 총선에서 광주 북갑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 김 전 장관

이영호의원 지역구 찾아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은 8일 완도군 군민회관, 9일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황금바다'라는 제목의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개최. 이 의원은 책을 통해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제시.

민형배씨 첨단 나설 듯

○민형배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은 8일 오후 첨단지구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이정우 전 시민의 소리 편집장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열고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쟁점을 다룬 '대화-문화 중심도시 광주, 열길 풍경'이라

북구 의원들 '타르' 봉사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11일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등에서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밀려온 타르 덩어리(기름 찌꺼기) 제거 활동을 벌일 계획. 북구의회 의원들은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량이 태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자칫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의 생계와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기원하며 기름 제거 작업을 펼칠 예정. /홍행기·임동욱·김지을 기자 /사진=위적람기자 jrwi@

